

청화스님

美서 3년만에 일시귀국

특별 법회 지상중계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애욕품(愛欲品) ③

雖獄有鉤鎖 수옥유구쇄
 慈人不調牢 해인불위뢰
 惡兒妻子戀 우견처지사
 染着愛甚牢 염착애심뢰

비록 감옥에 쇠고랑 쇠창살이 있다 해도 지혜로운 이는 견고한 울이라 하지 않네
 어리석은 이는 처 자식을 보고도 집착에 빠진 그 사랑 견고한 울이 되네

慈說愛爲獄 해설애위옥
 深惡難得出 심고난득출
 是故當斷愛 시고당단기
 不視能安 불시능안

지혜로운 이 말하기를 감애는 감옥이라 깊고 단단하여 빠져나오기 어렵다 한다

그러므로 마땅히 끊고 버려서 갈애 보이지 않으면 편안하리라

見色心迷惑 견색심미혹

욕망과 애욕으로 자신을 가리면 스스로 번뇌의 감옥에 갇힌다

不離羂索 불유관무상
 愚以爲美善 우이위미선
 安知其非眞 안지기비진

형상을 보고 마음이 미혹하여 덧없음을 보려고도 않으니 어리석은 이는 아름답다 칭찬 하나 어찌 그것이 참이 아닌줄 알랴

以聲樂自裏 이음락자리
 譬如織作縲 비여잡작견
 智者能斷愛 지자능단기
 不脫除衆苦 불탈제중고

음행의 즐거움으로 스스로를 싸는 것

누에가 스스로 고치 짓는 것 같네 슬기로운 이는 능히 이를 끊고 버려 돌아보지 않아서 온갖 괴로움 없앤다

心念放逸者 심념방일자
 見獄以爲淨 견읍이위정
 惡愛意盛增 은애의성중
 從是造獄牢 종시조옥뢰

마음에 방일한 생각이 있는 자

음행을 보고도 깨끗하다 하고 은애의 뜻은 날로 왕성해 이를 좇아 감옥을 스스로 짓는다

覺意滅淫者 각의멸음자
 常念欲不淨 상념욕부정
 從是出邪獄 종시출사옥
 能斷老死患 능단노사환

이 뜻 깨달아 음욕 없앤 이 언제나 욕망은 부정하다 여기며 이를 좇아 번뇌의 감옥에서 나와 능히 늙고 죽는 근심 끊어버린다

以欲網自蔽 이욕망자폐
 以愛蓋自覆 이에개자복
 自志縛於獄 자지박어옥
 如魚入口口 여어입구구

욕망의 그물로 자신을 가리고 애욕의 덮개로 자신을 덮으면 스스로 방자하여 감옥에 갇힌다 마치 물고기가 뱀발 주둥이에 들어 가듯이

爲老死所向 위노사소사
 若猶求母乳 약독구모유
 離欲滅愛戀 이욕멸애적

욕망과 애욕으로 자신을 가리면 스스로 번뇌의 감옥에 갇힌다

出網無所縛 출망무소쇄

늬움과 죽음이 엮보는 것 송아지가 어미 젖 구하는것 같네 욕심 여의고 갈애의 자취 없애면 그물에서 벗어나 얽매임 없어진다.

盡除羂索縛 진도제옥박
 一切此彼解 일체차피해
 已得度彼岸 이득도변연
 是爲大智士 시위대지사

도에 힘써 감옥의 사슬 끊고 일체 번뇌 모두다 풀어버리고 치우친 행을 이미 넘었으면 그런 이를 크게 슬기로운 이라 한다

勿親遠法人 물친원법인
 亦勿爲愛染 역물위애염
 不斷三世者 불단삼세자
 會復墮邊行 회부타변행

법을 멀리하는 사람과 친하지 말고 애욕에 물들지 말라 삼세 인연 끊지 못하는 사람 반드시 치우친 행에 또 떨어진다

龍眼



◇14일 청평 반아사에서 법문하는 청화스님.



◇스님의 법문에 귀 기울이고 있는 불자들.

40년 장좌불와로 정진해오며 소탈한 대선지식의 면모를 보여주셨던 청화스님(76). 지난 95년 출국해 미국에서의 3년 결사를 마친 스님은 3년만의 9일 일시귀국했다. 청화스님은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열화와 같은 불자들의 청을 받아 들어 광주 성문사(2일), 청평 반아사(14일), 변산 실상사(25일), 강릉 성원사(28일) 등에서 법문했다. 14일 반아사에서는 먼길도 마다않고 모여든 전국의 불자들이 오랜만에 듣는 갈수록 깊은 스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 청화스님의 이날 법문을 요약해 지상중계한다. 스님은 순회 법회를 마치고, 30일 미국으로 다시 출국한다. <편집자 주>

불교를 말할 때 우리는 그 교리가 주로 한문으로만 표현되고, 내용이 이해되지 않거나 많아서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워 들어가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불문에 몸담아 온 나는 불교가 어렵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처님 법의 요체는 불자 여러분들이 대체로 아는 비와 같이 정정한 계율, 참선염불하는 선정과 또 인간의 본질과 우주만유의 근본성품인 본체를 아는 지혜, 이 세가지입니다. 이 세가지야말로 우리 마음과 몸을 편하게 하고, 사람 사람과의 관계나 모든 것을 순탄하게 합니다.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을 가운데 부처님이 설하신 계율같이 합리적인 것은 없습니다. 계율은 우리사회생활에서 꼭 지켜야 할 우주의 질서입니다. 유교의 인의예지신인,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십계명, 그러한 세계 종교의 우수한 도덕들도 다 불교의 계율에 들어 있습니다. 계율만 제대로 지키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마음도 편해지고 주위도 편해집니다. 우

“계율 제대로 지키면

도업과 선업 개념 알아야 해요 선업만으론 해탈 이룰 수 없지만 도업 쌓으면 대자유의 길 열려요 相을 떠나서 행해야 도업 됩니다

리가 참선 염불을 해서 깊은 명상에 들어가 허더라도 계율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명상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흥내만 낼 뿐이지 마음이 정화가 안됩니다. 명상이라는 것은 마음의 정화를 도모하는 것인데 계율이 밑받침 안되면 명상을 해서 이루는 마음정화는 올 수가 없지요.

참다운 지혜는 반야의 지혜입니다. 세속적인 분별지혜, 차별적인 지혜, 이런 것은 우리 인간 의식의 범위 내에서 분별하는 것이지, 초월적인 모든 존재 본질의 지혜는 못 됩니다. 따라서 좀 재주가 있고, 학문적인 수련이 깊어서 분별적인 지혜는 어느 정도 익힌다 하더라도 이른바 분별을 떠난 현상적인 문제라든가 초월적인 문제를 통틀어서 제일의 것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반야바라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른바 무위법입니다. 또는 무루법이라고도 합니다. 무위법은 인연사이의 모양이 아닌 그 모양을 지양한 생명자체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것을 다른 종교의 교조가 전혀 모른 것은 아니라 할 지라도 부처님처럼 명확히 구분해 하지는 못했습니다. 가령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 물질이라든가 여러가지 것을 보시도 하고, 봉사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훈법의 범위내에서는 나

라는 관념과 너라는 관념을 떠날 수가 없고, 내가 물질을 많이 보시한다 적게 보시한다는 그러한 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해탈이라는 불교의 궁극적인 도리, 동시에 우리인간의 본래적인 도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상을 떠나는 행위 이것은 그 생각으로나 행위로나 참다운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보시한다 하더라도 상을 떠나서 행해야 그것이 도업이 됩니다. 우리 불자들은 도업과 세간에서 착한 일을 해서 쌓는 선업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증생이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선업입니다. 육계, 천상, 무색계와 같은 곳에 가는 것은 선업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선업만으로는 우리의 번뇌를 모조리 소멸시켜서 영생해탈도 나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육계를 초월하고, 색계를 초월하고, 또 무색계를 초월하고, 천상도 다 초월해서 정말로 대 자유인, 참다운 자기인 대아, 진아의 존재까지 올라 가기 위해서는 도업을 쌓아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참다운 해탈을 이루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해탈은 커녕, 아직 선업도 못 닦은 이가 많은 것을 볼때 어렵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

다. 그렇더라도 절대로 비판할 것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세속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인간의 몸으로 육계의 굴레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불성 자체는 조금도 오염되지 않았습니니다. 따라서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달마대사와 같은 도인들과 비교하더라도 우리 마음자리만은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니다.

불지에 오른 유마거사의 말씀을 모은 <유마경> 가운데 입불이법문(入不二法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 상수제자인 사리불 목건련을 위해서서 32 아라한에게 유마거사가 설한 법문입니다. 둘이 아닌 그런 수승한 법에 들어가는 법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가 둘이나 셋이나 이원론도 삼원론도 아니고 오직 일원론이라는 말입니다. 일원론은 나나 너나 달마 석가 우리 모두가 본체가 있어서는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이지요. 다만 현상에서 차이가 날 뿐입니다.

아니 나같은 증생과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 왜 차이가 없다는 것일까 하고 의심을 품는 분도 계시겠지요. 차이가 있는 모양에서 의심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불교달로 구체화하면 나라는 상, 너라는 상, 또는 증생이라는 상, 또는 우리 수명이나 시간이 짧다고 하는 상을 다 떠나 버린 경지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을 어떻게 여월 것인가. 상을 여의는 법문이 바로 유마거사의 입불이법문입니다. 천지우주 모두가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증생과 성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성자는 모든 것을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데, 증생들은 천차만별로, 모든 것을 업장이라는 안경을 쓰고 본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증생은 평상 분별합니다.

요즘같이 정보가 홍수처럼 물려들때는

지혜의 빛 자비의 샘 채널32 불교텔레비전

이계진 아나운서가 승리절 홍보 보좌관!



우리절 우리스님

방송시간
 (50분간 1회본방 3회 재방)
 매주 화요일
 09 10~10 00
 13 25~14 15
 22 00~22 50
 매주 일요일
 18 40~19 30

" 불교텔레비전 '우리절 우리스님'에 출연이길 참 잘했어요."
 인제대학교 믿음직한 불자 아나운서 이계진씨가 우리절 자랑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우리끼리만 알고 있기에 너무 아까운 우리절 이야기 보따리를 요즘 잘 나가는 프로 '우리절 우리스님'에 나가 풀어보세요.
 가슴속은 시원애지고 어깨는 으쓱해집니다.

* 출연문의 : 불교TV 영상사업부 02)3270-3368



불교 TV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번지

* 불교TV는 케이블TV에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